

천주교인의 집단 성경공부 참여에 의한 신앙성숙과 종교적 태도변화에 대한 고찰*

김 동 기

강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교회 내의 집단 성경공부가 신자들의 신앙성숙과 복음화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신자들의 심리적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네 가지 가설은 집단 성경공부 효과에 의한 ‘신앙성숙의 변화’ ‘신앙생활의 변화’ ‘종교정향의 변화’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등에 대한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집단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총 인원이 330명이었다. 10개월 동안 교회 내의 집단 성경공부 프로그램 효과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에서 일정한 기간이상 집단으로 성경공부를 할 경우에 신자들의 신앙성숙에서 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다만 신앙성숙에서 신앙적 가치관이나 믿음이 중심이 되는 수직적 주제의 성숙이 신앙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는 수평적 주제의 성숙보다 우선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이 대체로 열성적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성경공부가 심리적 요소들에서 정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성경공부 프로그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고, 더욱이 자신의 생활을 신앙에 헌신하거나 영적 성숙을 위한 노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셋째, 집단 성경공부가 종교정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종교적 환경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외적 정향이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고, 신앙공동체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활성화 측면에서 상호작용적 정향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집단 성경공부에 참여한 신자들이 어느 정도 성화되었다 할지라도 심층적 심성에서부터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변화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핵심 주제어 : 집단 성경공부, 종교교육, 신앙성숙 척도, 종교정향 척도, 심리적 안녕감, 종교심리

* 이 논문은 2008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 론

그리스도교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집단 성경공부(group bible study)를 권유하고 있다. 신앙인이 어떤 형태로든 성경공부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고 당연하지만, 교회는 신자들이 성경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보다 더 성화(聖化)되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책 중의 하나로 집단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종교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에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신앙발달, 복음의 집단적 나눔, 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추구, 개인적 신앙성숙, 성령의 인식으로 경이로운 삶을 추구, 보편적 신념과 가치 강화 등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교회 내의 집단 성경공부가 신자들의 신앙성숙과 복음화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신자들의 심리적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집단 성경공부의 방식과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영국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Scriptura'와 'The Scottish bulletin of evangelical theology', 그리고 미국의 학회지 'Religious education' 등의 정기간행물에서 주로 발표되었다. 이에 관한 최근의 주요 연구를 보면, Bosman(2001)¹²⁴⁾은 성공회 교회 내에서의 성구(聖句 Scripture)읽기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집단 역학적 측면에서 집단 성경공부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신약성경 내의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을 공부하는 각각의 두 집단에서 성경공부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묵상을 하면서 성구의 유추(analogy) 언어를 통하여 각자의 생활 경험을 나누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경공부는 신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묵상이 신앙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치유의 권능을 종교적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집단 성경공부를 통한 성경해석의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Conradie와 Jonker(2001)¹²⁵⁾는 집단적 맥락에서 성경 해석의 역할수행이 성경공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서로 어떻게 관련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성경 해석의 전통성의 역할, 적용을 위한 해석적 전략의 역할, 역사적 시대적 맥락의 역할, 관념학적 왜곡의 영향, 집단적 해석의 역할, 집단적 상호작용의 역할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보스만의 연구에서와 같이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을 각각 공부한 여섯 개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도출한 성구 해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집단 성경 해석 과정의 집단 상호작용 역할의 중요성도 검증하였다. 즉, 집단의 보편적 신념강화를 위한 성경 지도자의 해설, 성경공부를 우선으로 하는 리더십, 개인의 종교, 가치, 헌신 등에 적절한 나눔의 단계를 지도, 강한 교리적 방향 제시

124) Bosman, H. L. "A Thick Description of two bible studies by the Belhar Anglican Group", Scriptura, 78, 2001, pp.367-370.

125) Conradie, E. M., & Jonker, L. C. "Bible study within established bible study groups: Results of an empirical research project", Scriptura, 78, 2001, pp.381-398.

를 발언하는 성경 지도자, 소극적인 성경공부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을 권장, 성경 지도자가 없이 운영하는 성경공부 집단의 역기능성 등에 대한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관한 연구에서, 주일학교의 집단 성경공부 참여 상황의 변인을 분리해내는 것과 참여 변인과 노인의 신앙성숙 간의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그 연구의 기본 가정은 집단 성경공부 참가자가 신앙성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가 제안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예배참례와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배참례를 열심히 하지만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의 신앙성숙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주제이다. 맥스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enson과 Eklind(1990)¹²⁶⁾에 의해 개발된 신앙성숙 척도(Mature Faith Scales)를 이용하였다. 신앙성숙 척도(MFS)는 1987년에 Benson과 Eklind이 최초로 개발한 이후 그리스도교회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에 의해 프로젝트 연구로 개발이 진전되었고, Benson, Donahue와 Erickson(1993)¹²⁷⁾의 노력에 의해 척도의 구체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신앙성숙 척도는 38개의 신앙성숙 지표를 나타내는 문항들(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교인의 성숙신앙에 관한 8개의 핵심 차원으로 특성화되어 있다. 즉 (1) 신뢰와 믿음 (2) 신앙 열매를 경험 (3) 신앙과 생활의 통합 (4) 영성적 성숙 추구 (5) 공동체 경험과 신앙교육 (6) 생활의 긍정적 가치관 소유 (7) 사회변화 추진 (8) 활동과 봉사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들 8개의 차원은 2개의 일반적 주제로 나뉘질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신앙성숙을 경험할 때, 생활에 변화를 주는 하느님과 관계를 의미하는 수직적 주제(vertical themes)와 타인에게 봉사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게 하는 수평적 주제(horizontal themes)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 척도를 이용한 맥스웰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예배참례와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단은 예배참례를 열심히 하지만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집단보다 신앙성숙 점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발견하였고($F=8.05$, $p<.05$), 효과적인 그리스도교인 성경공부(교육)가 신앙성숙에 성과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톨릭교회에서 천주교인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단 성경공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거룩한 독서’ 과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가톨릭교회에서는 매년 교구단위로 혹은 성당단위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진행된 집단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자들의 복음화와 더불어 신앙공동체의 신앙성숙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앞서 제시한 집단 성경공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성경공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맥스웰이 연구한 접근방법과 같이, 집단 성경공부와 신앙성숙 간의 상관성을 검증하고, 참가자의 심리적 정서적 요소들과도 어떤 관련이 있는

126) Benson, P. L., & Eklind, C. H. Effective Christian education: A national study of protestant congregations —A summary report on faith, loyalty, and congregational life (Minneapolis: Search Institute, 1990), p.10.

127) Benson, P. L., Donahue, M. J., & Erickson, J. A. “The Faith Maturity Scale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empirical validation”,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 1993, pp.1-26.

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맥스웰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한 것과 달리, 20대에서 6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신앙인을 표집으로 하는 보편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성경공부의 효과와 관련하여 모두 네 가지 측면을 고찰하였는데, 첫째, 신앙성숙 척도(FMS)를 사용하여 집단 성경공부 효과를 검증하였고, 둘째, 참가자의 신앙생활 중 심리적 요소 측면(예컨대, 참례에 의한 성화¹²⁸⁾, 교회봉사의 보람, 선교노력, 생활의 헌신)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셋째는 Bosman(2001), Conradie와 Jonker(2001), Maxwell(1998) 등이 집단 성경공부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던 연구주제들을 내적(internal), 외적(external), 상호작용적(interactional) 정향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Batson, Schoenrade와 Ventis(1993)¹²⁹⁾의 종교정향(Religious Orientations) 척도 조사방식에 의한 종교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접근방식으로 선행연구들이 밝히고자 했던 성경내용 이해의 주제들과 집단 성경공부의 효과에 대한 상관성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즉, 내적 정향에 해당되는 주제들은 성경의 충만함을 인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묵상, 성경 해석의 전통성 역할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외적 정향에 적합한 주제들은 치유의 권능을 종교적 방식으로 이해, 역사적 시대적 맥락의 역할, 집단적 해석의 역할 등이라고 보았으며, 상호작용적 정향에 해당하는 주제들은 성경 내용의 관념학적 왜곡의 영향, 집단적 상호작용의 역할 등으로 구분하였다.

넷째는 집단 성경공부의 효과와 참가자의 정서적 요소에 해당하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과의 상관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주제는 성경공부에 의한 신앙성숙이 인간 행복의 대안적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과거에 Maxwell(1998)¹³⁰⁾은 집단 성경공부 효과가 신자들의 성격유형을 비롯하여 생활만족,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이 내면화 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본다면 모두 잠재적 변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집단 성경공부를 함으로써 그와 같은 변인들이 개인에게 신앙성숙의 효과를 조절하거나 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최근의 김동기(2007)¹³¹⁾는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개념관계 검증연구에서,

128) 인간이 하느님의 성성(聖性)에 이르거나 참여하는 것. 성성에 이른다는 말은 하느님과 일치한다는 뜻인데, 하느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에 머무르는 자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다(I 요한 4: 16). 또 복음적 권고는 성화의 중요한 방법이다.

129) Batson, C. D., Schoenrade, P., Ventis, W. L., Religion and the individual: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162-171. 베이슨 등은 내적 정향을 종교를 개인 내적 욕구의 결과로 보며 인생의 목적적(end) 정향이라고 하였고, 외적 정향은 개인적 종교에 외부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수단적(means) 정향이라 하였고, 상호작용 정향은 인생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 개방적 대응을 하고 종교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포함하는 추구적(quest) 정향이라고 주장하였다.

130) Maxwell, D. D., op. cit, p.410.

행복감과 종교성은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모형이기보다는 상호작용적 모형이 더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같은 주제를 실질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생활만족이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정서적 요소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는 Ryff와 Keyes(1995)¹³²⁾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이용하여 집단 성경공부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스도교 교리에 의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같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가 복음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경을 집단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교육적 방식은 다양하지만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거의 일치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속성 때문이라고 추정되지만, 교회 내의 집단 성경공부에 의한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일반사회의 교육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여러 연령층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 성경공부의 효과와 관련하여 모두 네 가지 측면에서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첫째, 집단 성경공부 효과에 의한 신앙성숙의 발전을 검증하고, 둘째, 집단 성경공부에 의한 심리적 요소에서의 신앙생활 향상을 고찰하고, 셋째는 집단 성경공부를 통해 신자들의 종교정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넷째는 집단 성경공부의 효과와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집단 성경공부 참여경험이 신앙성숙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2. 집단 성경공부 참여경험이 신앙생활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3. 집단 성경공부 참여경험이 종교정향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4. 집단 성경공부 참여경험이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서울의 서부에 소재하는 D성당의 신자들로서, 평소에 꾸준히 미사에 참례하고 대체로 활발한 신앙생활을 통해 능동적으로 신심단련을 하고자 하는 평범한 신앙인들이다. 연구대상자들은 그 성당에서 실시하는 1년 4개월 과정의 집단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시간표에 따라 성당에서 매

131) 김동기,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개념관계 모형들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2권 제2호(서울: 한국심리학회, 2007), pp.347-365.

132) Ryff, C. D., & Keyes, C. L. 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4, 1995, pp.719-727.

주 1회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전체 과정을 참여한 신자들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사전 사후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조사는 2006년 9월에 실시하였고 사후조사는 2007년 7월에 실시하여 10개월의 동안의 집단 성경공부가 진행된 후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집단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사전 사후 조사에 참여한 총 인원이 330명(남자 63명, 여자 267명)이었다. 사전조사에는 163명(남자 38명 여자 125명), 사후조사에는 167명(남자 25명, 여자 142명)이 참여하였다. 사전조사 직후 추가 가입이나 포기자가 발생하여 참여자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성경공부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분포는 30대 이하 13%(43명), 40대 27%(89명), 50대 27%(89명), 60대 이상 33%(109명)로 나타났다. 집단 성경공부는 프로그램의 진행계획에 따라 참여 신자들을 20명 내외로 분반하였으며, 각 반의 진행자를 선정하여 매 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구성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척도들이다. 즉, 신앙성숙 척도(Mature Faith Scales), 신앙생활의 심리적 변인에 관한 측정 척도, 종교정향 척도(Religious Orientations Scales),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s) 등이다.

1) 신앙성숙 척도(Mature Faith Scales): Benson 등에 의해서 개발된 척도(7분 척도)로서, 신앙성숙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우선적이고, 힘차고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의 특성에 대한 지각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MFS의 8개 차원과 각 영역별 핵심적 문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신뢰와 믿음; ‘하느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2) 신앙 열매를 경험;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하느님의 현시를 느낀다.’ (3) 신앙과 생활의 통합; ‘하느님 창조물의 아름다움에 나는 영성적으로 감동하고 있다’ (4) 성적 성숙 추구; ‘나에게 있어서 종교적 사고와 묵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5) 공동체 경험과 신앙교육;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기도 한다.’ (6) 생활의 긍정적 가치관 소유; ‘나의 생활은 의미가 있고 목적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을 느낀다.’ (7) 사회변화 추진; ‘나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신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8) 활동과 봉사;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는 데에 시간과 금전을 특별히 할애하고 있다’ 등이다.

2) 신앙생활의 심리적 요소에 관한 측정 척도: 집단 성경공부에 의한 신앙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변인의 측정 척도 문항으로서, 미사참례, 교회봉사활동, 선교노력 등은 5분 척도이고, 영적 성숙 노력, 일상생활 헌신, 가난한 이웃돕기 노력, 성경에 대한 인식 등은 7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종교정향 척도(Religious Orientations Scales)¹³³⁾: Batson 등이 개발한 척도(7분 척도)로서, 내적 척도(internal scale)는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며 자신의 모든 생활을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고 자신의 종교가 인생의 목적적 지향에 대한 측정이라고 하였다. 관련 문항을 예로 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미사에 참례 한다’ 등이다. 외적 척도(external scale)는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외재적 동기가 반영되는 외부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삶의 수단적 정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관련 문항을 예로 들면, ‘종교는 친교적 대인관계나 안정감에 대한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등이다. 상호작용 척도(interactional scale)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신앙에 의해 이타적 행동과 같은 바람직한 일을 지향하는 추구적 정향의 척도라고 하였다. 관련 문항을 예로 들면, ‘나의 종교적인 의문과 불확실성은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등이다.

4)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s): Ryff 등이 개발한 안녕감의 다차원적 모델 가운데, 안녕감의 정적 기능 역할을 제공하는 복합적 이론을 근거로 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모두 46개 문항(7분 척도)으로 개발되었고, 다음과 같이 심리적 정적 기능 측면에서 6가지 차원의 변별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즉 (1) 자신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인 태도(self-acceptance) (2) 자신이 발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발전되어가는 느낌(personal growth) (3)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음(purpose in life) (4)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음(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5)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낌(envronmental mastery) (6) 자신은 결단력이 있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함(autonomy) 등 이다.

그리고 D성당에서 실시한 집단 성경공부 프로그램 진행 방법과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자 각자는 성당에서 정해진 요일의 모임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바치고, 매일의 단위로 정해진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시간과 장소에 관한 말과 등 장인물들의 이름과 언행 등에 유의하여 관심을 가진다. 둘째, 모임의 진행은 각 반 진행자가 맡으며, 시작성가-독서 전 기도-독서나눔 주제 성경읽기-성경 내용에 대한 발표-묵상 내용 발표-기도 등의 순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셋째, 전체 운영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특강을 2회 실시하였고, 각 단락별로 통합 강의를 6회 실시하였다.

3. 조사 방법 및 자료처리

D성당의 집단 성경공부는 2006년 9월에 시작하여 이때에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33) 종교정향의 세 가지 척도에 대한 용어 사용에서, Allport는 intrinsic(내재적), extrinsic(외재적) 정향이라고 하였고, Batson은 내적(internal), 외적(external), 상호작용적(interactional) 정향이라고 하였다. 두 학자가 사용한 용어들의 의미하는 바가 유사하지만, 각각의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어에 적합한 우리말로 번역하고자 하였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의 사후 설문조사는 2007년 7월에 실시하였다. 그 집단 성경공부는 11월까지 계속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에서 사후 조사를 실시한 것은 성경공부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시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참이나 포기하는 신자수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그 시점으로 정하였다. 사전 조사에는 163명(남자 38명 여자 125명)이 참여하였고 사후 조사에는 167명(남자 25명, 여자 142명)이 참여하였지만 불참자나 포기자가 발생하여 참여자 수에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 내용에 대한 개인적 추적이 불가능하여 사전 사후 설문조사 자료는 조사 집단 전체의 응답 내용으로 처리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처리는 SAS 통계프로그램의 t검증 방식으로 집단 성경공부 전후 차이의 유의성을 고찰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집단 성경공부에 의한 신앙성숙의 변화

집단 성경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에게 신앙성숙 척도에 대해 응답하게 하는 사

〈표 1〉 집단 성경공부 효과에 의한 신앙성숙 차의 검증

신앙성숙 차원	성경공부 전	성경공부 후	t 검증
1. 신뢰와 믿음	5.68(1.67) (N=160)	6.26(1.07) (N=167)	-3.73(df=269)***
2. 신앙 열매를 경험	4.92(1.76) (N=157)	5.39(1.46) (N=167)	-2.61(df=303)**
3. 신앙과 생활의 통합	5.84(1.39) (N=158)	6.31(1.01) (N=167)	-3.45(df=286)***
4. 영성적 성숙 추구	5.02(1.82) (N=157)	5.66(1.37) (N=167)	-3.54(df=290)***
5. 공동체 경험과 신앙교육	4.96(1.88) (N=156)	5.54(1.41) (N=167)	-3.09(df=287)**
6. 생활의 긍정적 가치관 소유	4.95(1.78) (N=158)	5.64(1.22) (N=167)	-4.05(df=277)***
7. 사회변화 추진	3.61(1.98) (N=155)	4.13(1.84) (N=167)	-2.45(df=313)*
8. 활동과 봉사	4.00(1.75) (N=159)	4.26(1.44) (N=167)	-1.47(df=306)

*p<.05 **p<.01 ***p<.001 ▪ 모든 신앙성숙 척도 문항은 7점 척도임.

전 설문조사를 하고,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10개월 동안 진행된 후에 동일한 신앙성숙 척도 문항으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처리가 수행되었고,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검증 결과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Benson 등의 신앙성숙 척도(Mature Faith Scales) 8개 차원 중에 7개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집단 성경공부 참여경험이 신앙성숙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Maxwell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즉, 예배참례와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단은 예배참례를 열심히 하지만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집단보다 신앙성숙 척도 점수가 더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앙성숙 척도의 8개 차원 가운데 점수 차이의 유의성이 가장 높은 차원은 ‘생활의 긍정적 가치관 소유’($t=-4.05$)이고, 그 다음이 ‘신뢰와 믿음’($t=-3.73$, $p<.001$) 차원이다. 반대로 점수 차이의 유의미성이 가장 낮은 차원은 ‘활동과 봉사’($t=-1.47$, $p>.05$)와 ‘사회변화 추진’($t=-2.45$, $p<.05$) 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신자들은 집단 성경공부를 통해 교회활동과 봉사에 대한 관심의 변화보다는 긍정적 가치관이나 신뢰와 믿음에 대한 관심에 더 큰 변화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집단 성경공부에 의한 신앙생활의 변화

두 번째 가설은 10개월 동안의 집단 성경공부에 참여한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심리적 요소들에 대한 인식 변화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성경공부의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에서 차이의 유의성을 나타낸 변인들은 ‘일상생활 헌신’($t=3.15$, $p<.01$), ‘선교노력’($t=2.19$, $p<.05$), ‘영적 성숙 노력’($t=2.19$, $p<.05$) 등이다. 그러나 ‘미사 참례’, ‘교회봉사활동’, ‘가난이웃도움 노력’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연구대상자는 사전 측정에서 나타난 점수를 보아도 신앙심이 깊은 편이고 어느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인 것으로 파악되어, 사후의 측정척도 점수가 더 이상 높아지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더 성화(聖化)되었을 때는 심리적 신앙태도 측면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미사 참례나 교회봉사활동 등에서는 약간 더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경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유일하고 권위 있는 책이라고 믿는가?”로 질문한 ‘성경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는 사전 측정에서 평균이 6.34점(7점 척도)이었고, 사후 측정에서는 6.58점으로서 약간의 정적(定的) 점수의 변화를 보였지만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에 있어서, 신앙생활 변인들 가운데 일부의 중요한 요소들에서 변화 차이의 유의성이 나타난 것으로서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집단 성경공부 효과에 의한 신앙생활 차의 검증

신앙생활 요소	성경공부 전	성경공부 후	t 검증
미사 참례	3.76(.82) (N=162)	3.92(.81) (N=158)	-1.74(df=318)
교회봉사활동	2.99(1.37) (N=159)	3.22(1.22) (N=165)	-1.60(df=315)
선교노력	3.05(1.10) (N=160)	3.30(.90) (N=166)	-2.19(df=308)*
영적 성숙 노력	5.46(1.63) (N=158)	5.80(1.36) (N=167)	-2.06(df=306)*
일상생활 헌신	4.87(1.76) (N=155)	5.43(1.33) (N=167)	-3.15(df=286)**
가난이웃도움노력	4.48(1.94) (N=156)	4.80(1.66) (N=167)	-1.62(df=306)
성경에 대한 인식	6.34(1.42) (N=160)	6.58(0.92) (N=167)	-1.78(df=270)

* $p < .05$ ** $p < .01$ ▪ 미사참례, 교회봉사활동, 선교노력 척도는 5점 척도이고, 영적 성숙 노력, 일상생활 헌신, 가난이웃도움노력, 성경에 대한 인식은 7점 척도임.

3. 집단 성경공부에 의한 종교정향의 변화

종교정향(Religious Orientations)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종교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는 태도를 의미한다. <표 3>은 집단 성경공부를 경험한 신자들이 Batson 등이 제안한 세 가지 정향의 척도에서 변화된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세 가지 정향 모두에서 정적(定的) 점수의 변화를 나타내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외적 정향’($t = -3.09$, $p < .01$)과 ‘상호작용적 정향’($t = -2.39$, $p < .05$)이고 ‘내적 정향’은 유의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집단 성경공부의 경험은 유의한 차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정향이 더 많아,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신앙인의 내적 정향과 외적 정향은 원래 단순 양극 연속성 개념에서 출발하였지만 종교적 동기화의 기저에서 이해할 때, 두 정향이 서로 다른 성격의 기저를 가지고 있어 상반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최근에는 두 가지 종교정향은 분리된 두 극의 구성으로 개념화하기에 이르렀다(Watson et al., 2002).¹³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134) Watson, P. J., Ghorbani, N., Davison, H. K., Bing, M. N., Hood, R. W., & Ghramaleki, A. F.,

〈표 3〉 집단 성경공부 효과에 의한 종교정향 차의 검증

종교정향	성경공부 전	성경공부 후	t 검증
내적 정향	5.79(1.73) (N=159)	6.06(1.49) (N=165)	-1.45(df=312)
외적 정향	4.96(1.88) (N=156)	5.54(1.41) (N=167)	-3.09(df=287)**
상호작용적 정향	3.95(1.92) (N=160)	4.43(1.69) (N=167)	-2.39(df=308)*

* p<.05 ** p<.01 ▪ 모든 종교정향 척도 문항은 7점 척도임.

이, 세 번째 가설의 차의 검증에서 외적 정향과 상호작용적 정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내적 정향도 유의성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t 값(대개는 $t=1.96$ 이상부터 유의미 수준이라고 해석함)에 이르고 있다. 이 결과는 김동기(2003)¹³⁵⁾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듯이, 신앙심의 수준이 비슷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내적 정향이 강한 사람 혹은 외적 정향이 강한 사람이 각각 존재할 수도 있기도 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의 경우에 두 정향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지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내재적 정향은 자신의 삶 안에서 골격을 유지하려는 동기에 의한 성숙된 신앙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재적 정향이나 상호작용적 정향과는 달리 짧은 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차원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에 10개월 동안의 집단 성경공부 효과가 내적 정향에서는 유의한 차이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집단 성경공부에 의한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은 집단 성경공부의 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 성경공부 프로그램 전과 후에 Ryff 등이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성경공부에 참여한 신자들은 어느 정도 성화(聖化)되었다 할지라도 심리적 안녕감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차원 6가지 중에 ‘자율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적(定的)으로 변화한 것으로서 약간의 성경공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의미성은 없지만 t 값이 가장 높은 것은 ‘삶의 목적’ 차원

“Negatively Reinforcing Personal Extrinsic Motivations: Religious Orient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Vol 12, No 4, 2002, pp.255-276.

135) 김동기, 「가톨릭 청년의 종교정향, 영성, 신앙 태도 그리고 생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 『종교학연구』 30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3 봄), pp.21-46.

〈표 4〉 집단 성경공부 효과에 의한 심리적 안녕감 차의 검증

심리적 안녕감 차원	성경공부 전	성경공부 후	t 검증
자율성	4.01(1.74) (N=156)	3.84(1.57) (N=166)	0.88(df=312)
환경지배	3.28(1.80) (N=156)	3.51(1.64) (N=166)	-1.16(df=312)
개인적 성장	5.34(1.56) (N=156)	5.48(1.35) (N=162)	-0.82(df=306)
삶의 목적	3.35(1.83) (N=156)	3.63(1.80) (N=165)	-1.37(df=318)
긍정적 대인관계	5.35(1.59) (N=159)	5.53(1.33) (N=163)	-1.07(df=307)
자아수용	4.15(1.56) (N=159)	4.17(1.47) (N=164)	-0.12(df=318)

▪ 모든 심리적 안녕감 척도 문항은 7점 척도임.

으로서 성경공부가 복음화를 조장하게 되어, 종교가 인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의 차원에 있어서는 아주 약한 부적(負的)변화를 나타내어, 성경공부가 심리적 안녕감에서 ‘개인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결단하며 개인적 기준에 의해 환경적 압력에 저항할 수도 있는 자율성 성향’에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심리적 안녕감이 행복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때 ‘종교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하는 주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개념관계 모형을 검증한 김동기(2007)¹³⁶⁾ 연구에서와 같이, 비록 종교가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성이 있다하더라도 모든 신앙인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종교와 심리적 안녕감 개념 모두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고, 결과로 나타난 상관성은 그러한 변인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보아, 집단 성경공부 효과 면에서 볼 때, 신앙성숙 변화나 종교적 태도변화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인들의 깊은 심성에서부터 느껴서 나타나게 되는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6) 김동기, 앞의 글, pp.347-365.

IV. 논의 및 결론

집단 성경공부는 종파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고, 수행 방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집단 성경공부 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는 신학적 교육의 측면에서,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내용의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시한 성경 내의 중요한 인물들의 언행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공부하게 하는 것이었다.¹³⁷⁾ 둘째는 종교교육 및 종교심리학 측면에서, 개인적 신앙성숙의 발달을 촉진하고 집단 복음화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성장의 모든 단계를 풍부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생활 적응에 활성화가 일어나는 신앙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었다.¹³⁸⁾

본 연구의 주제는 후자의 종교교육 및 종교심리학 측면의 연구로서, 교회 내의 집단 성경공부에 참여함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성경공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신앙생활이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네 가지 가설은 집단 성경공부 효과에 의한 ‘신앙성숙의 변화’ ‘신앙생활의 변화’ ‘종교정향의 변화’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등에 대한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10개월의 기간 동안 교회 내의 집단 성경공부 프로그램 효과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성경공부 효과에 의한 신앙성숙의 변화에 관한 가설 검증을 보면, 결과적으로 8개 차원의 신앙성숙 척도 가운데 ‘활동과 봉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Maxwell의 연구와는 집단 성경공부 프로그램의 방법상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성경공부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그리고 앞서 인용했듯이, Benson 등의 신앙성숙 척도연구¹³⁹⁾에서 총 38개의 척도 문항들을 하느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수직적 주제(vertical themes)와 타인들에게 봉사하는 나눔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평적 주제(horizontal themes)를 구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유추하여 해석해 본다면, 성경공부를 함으로써 신앙인의 가치관과 믿음이나 영성적 성숙추구 등의 의식적 개념(수직적 주제)이 우선적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신앙과 생활통합, 신앙공동체 경험, 신앙열매 경험, 사회변화 추진 개념(수평적 주제) 형성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⁰⁾ 이와 같은 신앙성숙의 특성에 대해서, 앞서 소개한 Maxwell(1998)은 개인이 집단과 의미와 목적을 나눔으로써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고, Piaget와 Kohlberg의 단계이론

137) 예컨대, 정기간행물 Scriptura와 The Scottish bulletin of evangelical theology.

138) 예컨대, 정기간행물 Religious education.

139) Benson, P. L., Donahue, M. J., & Erickson, J. A., op. cit, p.19.

140) 신앙성숙 변화에서 t값이 높은 차원의 순위별로 본다면, 생활의 긍정적 가치관($t=-4.05$) 신뢰와 믿음($t=-3.73$) 영성적 성숙 추구($t=-3.54$) 신앙과 생활의 통합($t=-3.45$) 공동체 경험과 신앙교육($t=-3.09$) 신앙 열매를 경험($t=-2.61$) 등이다(표 1 참조).

에 상당한 근거를 둔 Fowler(1981)의 신앙발달 이론을 비평하였다. Yale대학의 종교교육학자 Huebner(1986)¹⁴¹⁾도 신앙은 Piaget식의 구조주의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히려 우리의 일상 경험에 신앙이 개입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생활 일부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앙의 변화는 순서가 있고 예측 가능한 형태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발달적 측면이 아니라고 하였다.

둘째, 집단 성경공부 참여경험이 신자들의 신앙생활 태도들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고찰 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신자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10개월 동안의 성경공부를 통하여 변화한 심리적 요소들 가운데 일상생활을 헌신하겠다는 태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그 다음이 선교 노력과 영적 성숙 노력에 관한 요소의 순으로 유의미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대상 집단은 교회봉사나 가난한 이웃을 적극 도우려는 신앙실천 집단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영적 성숙에 더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성향의 연구대상 집단은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심단련 분야에 더 유의미한 변화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Bosman(2001)연구에서도, 집단 성경공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경공부는 성령이 우리에게 기적의 충만함을 인식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듯이 현세를 경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성경공부가 생활실천 이전에 신앙적 믿음과 신앙 성숙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집단 성경공부 효과에 의한 종교정향의 변화 차이를 검증한 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종교정향은 개인이 종교생활에서 지향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정향 척도는 원래는 Allport의 내재적(intrinsic) 외재적(extrinsic) 정향의 두 가지의 척도로 출발하였지만, Batson에 의해서 상호작용(interaction) 정향이 더 추가된 것이다. 앞의 <표 3>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세 가지 정향 모두가 정적인 t 값이지만 내적 정향은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로서 10개월 동안의 성경공부 효과는 외적 정향과 상호작용적 정향에 신앙심이 유의미하게 강화되었지만, 내적 정향까지는 효과가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Conradie와 Jonker(2001)의 연구 결과에서도 집단 성경공부의 효과는 지도자가 보편적 신념을 강화하고 명료화하게 해설을 해주어, 환경의 도전에 자신이 무력하다고 경험한 구성원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하여 외적 정향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집단 성경공부는 젊은 구성원들이 참여에 다소 수줍어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어 상호작용 정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내적 정향으로 신앙성숙이 일어났다는 성경공부의 효과는 제시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안할

141) Huebner, D. “Christian growth in faith”, Religious Education, 81(4), 1986, pp.511-521.

수 있다. 교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단으로 성경공부를 할 경우에 신자들의 신앙성숙에서 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성화이기 때문에, 신앙성숙도 신앙적 가치관이나 믿음이 중심이 되는 수직적 주제의 성숙이 신앙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는 수평적 주제의 성숙보다 우선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이 대체로 열성적 신앙의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성경공부가 신앙생활의 심리적 요소들에서 정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성경공부 프로그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고, 더욱이 자신의 생활을 신앙에 헌신하거나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신의 심신단련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집단 성경공부가 종교정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종교적 환경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외적 정향이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고, 신앙공동체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활성화 측면에서 상호작용적 정향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집단 성경공부에 참여한 신자들이 어느 정도 성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심층적 심성에서부터 인지되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변화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여러 심리학자들이 밝혔듯이 종교가 종종 우울이나 불안 등을 해소해주지만 기쁨의 정서 상태나 삶의 만족감에서 차이가 나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까지는 이번 10개월이 짧을 수도 있고, 개인의 심리적 반응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주관적이어서 모호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의한 연구결과들에서 교회 내의 집단 성경공부는 신자들의 신앙성숙과 복음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이후의 연구에서는 신자들의 영성 및 교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 종교교육 측면에서 성경공부의 효과를 보다 더 다양하게 검증하는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기. 『종교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김동기. 「가톨릭 청년의 종교정향, 영성, 신앙 태도 그리고 생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 『종교연구』 제30집(서울: 한국종교학회. 2003. 봄)
- 김동기.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개념관계 모형들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2권 제2호(서울: 한국심리학회. 2007.)
- Batson, C. D., Schoenrade, P., & Ventis, W. L., Religion and the individual: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Batson, C. D., & Ventis, W. L., The religious experience: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Benson, P. L., Donahue, M. J., & Erickson, J. A., "The Faith Maturity Scale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empirical validation",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

- 1993.
- Benson, P. L., & Eklin, C. H., Effective Christian education: A national study of protestant congregations-A summary report on faith, loyalty, and congregational life, Minneapolis: Search Institute, 1990.
- Bosman, H. L., "A Thick Description of two bible studies by the Belhar Anglocan Group", Scriptura, 78, 2001.
- Conradie, E. M., & Jonker, L. C., "Bible study within established bible study groups: Results of an empirical research project", Scriptura, 78, 2001.
- Fowler, J. W.,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New York: Harper & Row, 1981.
- Huebner, D., "Christian growth in faith", Religious Education, 81, 4, 1986.
- Maxwell, D. D., "Group bible study and faith maturity in older adults", Religious Education, 93, 4, 1998.
- Ryff, C.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 1989.
- Ryff, C. D., & Keyes, C. L. 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4, 1995.
- Watson, P. J., Ghorbani, N., Davison, H. K., Bing, M. N., Hood, R. W., & Ghramaleki, A. F., "Negatively Reinforcing Personal Extrinsic Motivations: Religious Orient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2, 4, 2002.

원고접수: 2008년 5월 20일 1차심사: 6월 9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 소개: 김동기

① 전공: 사회심리학 / 소속: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② 관심영역: 종교심리, 종교행동, 종교사회심리

③ 주요 논저: 『종교심리학』 「가톨릭 청년의 종교정향, 영성, 신앙 태도 그리고 생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 「회심과정의 태도와 태도변화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개념관계 모형들에 대한 비교 검증」

④ E-mail: ghdgk@kangnam.ac.kr

Abstract

Faith Maturity and Religious Attitude Change of Catholics through Group Bible Study

Kim, Dong Gi

Ka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effects group bible study within a Catholic Church has on the faith maturity and evangelicalism of Catholicism and to what degree it has influence on psychological change of Catholics in the aspect of religious lif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I considered four hypotheses about changes of mature faith index, religious life, religious orient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Group Bible Study. The total subjects who have participated in group bible study are 330 Catholic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which has been done on group bible study for 10 months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that Catholics have joined the Group Bible Study for a certain period, they shows positive changes in Mature Faith Index. Besides, the maturity of vertical themes which are based on religious value or belief is more extinct than that of the horizontal themes on activation of religious community. Secondly, Catholics who have participated in Group Bible Study show positive changes in psychological elements, which means the evident effect of Group Bible Study, and show significant changes in commitment to belief and effort for spiritual maturity. Thirdly, regarding the effects of Group Bible Study on Religious Orientations, significant changes come out in external orientation related to Catholics' pride in religious circumstances and in interactional orientation which means activation resulting in personal relationships in religious community. Finally in the aspect of the changes of Psychological Well- Being, the subjects who have been joined group bible study have been consecrated to some degree, but show no significant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 Being coming from in- depth mentality.

Key words : Group Bible Study, Religious Education, Mature Faith Scales, Religious Orientations Scales,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y of Religion.